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문화향기다라 삶을 힐링하다

생활 속에 녹아든 문화예술교육

‘호모루덴스’(Homo Ludens)는 유희인 인간을 뜻하는 용어이다. 유희는 단지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창조활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은 즐거움의 체험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이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올로’(Y OLO),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최근에 나타난 신조어로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와 소신을 지키며 현재를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실생활에서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문화비전 3대가치를 자율성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 창의성의 가치에 뒀다. 3대 가치가 실현되고 국민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주요한 수단인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풀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에 광주시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9-2022)을 수립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센터(廳) 조성’과 ‘거점예술배움터’ 운영, 계층별 특화된 콘텐츠의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교류와 확산 등의 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아가 예정이다.

2019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기반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문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1개 사업을 운영한다.



‘2018어린이목수축제-나는 목수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단체 사진.

/광주문화재단 제공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 예술배움터’로 18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주말 예술배움터’는 16개 운영단체를 선정해 주말에 아동 및 그 가족과 또래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창의예술학교’는 광주형 및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바퀴달린학교’, ‘시소학교’, ‘달항매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삶의 경험학교인 창의예술학교의 문을 연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바추어 예술동아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3개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지원하고 매개자인 문화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역 내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파견되고 유아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



50+세대를 위한 ‘경자씨와 재봉틀-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화예술교육이 실현된다.

넷째, 다양성과 창의성 실현을 위한 50+세대를 위한 ‘경자씨와 재봉틀-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연구소’, ‘문화예술교육ODA’, ‘정년인생 설계학교’, ‘어린이목수축제’, ‘19광주문화예술교육 축제-아트날라리’ 등을 통해 각 대상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처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다.

봄날의 따뜻한 별 아래 피어난 꽃과 부지런해진 생물들의 움직임처럼 한 해 준비를 마치고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많은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의 프로그램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주 시민의 삶이 문화예술로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및 토요문화학교와 창의예술학교 선정단체에 대한 정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락처 등)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gjarte.com)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정책교류연구팀〉



국내 정상급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

23일 금호아트홀...피아노·바이올린·첼로 협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오는 23일 유·스케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김 소프라노는 이날 무대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포도 나무 아래에’(Beneath the Vine), 에이미 비치의 ‘환희’(Ecstasy), ‘단지 이것을 위하여’(Just for this!), ‘신뢰의 찬가’(Hymn of Trust), ‘아, 사랑’(Ah, love) 등을 들려준다.

또한 임금수의 ‘그대 창밖에서’, 김주원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구스타프 말리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라’, ‘여름에 헤어짐’, ‘추억’, ‘이별’,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등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피아니스트 박은식,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이후성이 협연한다.

한편, 소프라노 김선희는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후 이탈리아로 유학해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베르첼리 비오티 최고 연주자과정,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아 지휘과정을 졸업했다. 국내에서는 한세대 음악과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위원, 광주음악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세대, 전남대, 광주교육대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연 문의 062-360-8437) /정겨울 기자



전남대 김현주 교수 작품 영국 박물관에 영구 소장



전남대 김현주(미술학과·사진) 교수의 공예작품이 공예와 디자인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

물관에 영구 소장돼 전시된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7년 2월 런던의 사치갤러리(Saatchi Gallery)에서 열린 콜렉트 아트페어에 한국의 KCDF갤러리의 초대작가로 참여해 오브제(Object·작품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사물)를 출품했다.

박물관 측은 당시 김 교수 작품의 우수성에 매료돼 2년 가까운 내부심사와 김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이 작품을 소장하기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을 그리다’ 시리즈 06번인 이 작품은 은과 진주자개로 제작된 보울(bowl, 사발)로 특히 상단 곡선의 유려함이 돋보이는 등 한국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재



김현주 작 'Draw a Circle series / Silver, mother-of-pearl' /전남대 제공

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은 1852년 설립된 영국 왕립 박물관 중의 하나로, 중세부터 근대에 걸친 유럽의 미술을 중심으로 동양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식미술,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김종민 기자



광주문화재단 토요문화학교 수업장면.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 품 - 3,000 만원
기 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 정문

문의 : 010-4821-8929